



▶(왼쪽부터) 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19년 대한항공 50주년 행사

역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11> 한진그룹

트럭 한대로 수송보국 도약
韓물류·항공산업 선도
메가 캐리어 '날갯짓'

메트로신문이 창간한 2002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국가 이벤트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꼽을 수 있다면, 재계에서는 '조중훈'이라는 별이 지고 그의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미군이 버린 트럭 한 대로 대한항공, 한진해운, (주)한진 등을 일궈낸 1세대가 막을 내리고 2세대 경영이 시작됐을 때, 시장이 한진에 거는 기대는 컸다. 한진그룹은 창업주 타계 후 조양호 회장이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직과 대한항공을, 차남이 한진중공업, 3남이 한진해운을, 4남이 메리츠금융을 각각 맡아 경영하게 됐다.

◆우여곡절 겪으며 성장하는 한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송은 인체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공간의 이동은 삶의 필수적 요소이고, 시간의 단축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다.” 조중훈 창업주가 자서전 '내가 걸어온 길'에 남긴 말이다. 한진그룹이 내세우는 단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창업 이념인 '수송보국(輸送報國)'일 것이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주)한진은 그 꿈을 이룬 기업들이었다. 지금은 사라진 한진해운도 2000년대 초에는 어닝서프라이즈 기사에 자주 이름을 올렸고 대한항공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의 힘을 보여주며 한국인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다.

조양호 회장 취임 1년 후인 2004년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35주년을 맞아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라는 새로운 비전 'Excellence in Flight'를 선포하고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이미 글로벌 얼라이언스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로 19개 글로벌 항공사와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대한항공은 2018년에는 미국의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 또 한번 도약에 성공하는 쾌거도 이뤘다. 특히 2001년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아시아 항공 시장의 중심부에 있어 천혜의 허브 조건을 과시하며 이는 대한항공의 글로벌 시장 내 입지 확보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지리적 이점과 독보적인 서비스를 토대로 환승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탑승수속 시간을 대폭 줄였으며 새로운 개념의 라운지를 개설하는 등 여객 운송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한진해운의 길은 달랐다. 조중훈 창업주의 삼남인 조수호 회장이 2002년부터 경영을 맡아 순항하던 한진해운은 2006년 조 회장 별세 뒤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독자 경영 체제로 바뀌게 됐다. 시대는 한진해운에

엄혹했다. 때마침 찾아온 글로벌 금융 위기로 유동성이 급경색 됐고 회사는 어려워져 갔다. 시속인 조양호 한진 회장이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2014년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그해 4월 한진해운 회장직에 취임했다. 그렇게 조 회장이 선전의 꿈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역부족이었고, 한진해운은 2017년 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세계 7위까지 올랐던 한진해운의 끝이었다.

3대째 수송보국 경영철학 굳건
차별화된 수송·여객 전문 서비스
국제 항공업계 리더로 위상 올라
우여곡절 끝에 '조원태號' 순항
팬데믹에도 화물사업으로 극복
아시아나 합병 뎀 '메가 캐리어'

여기에 선전을 이어 '한진호'를 이끌어오던 조 회장은 기업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두 딸의 '갑질 문제'를 시작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어 '오너 일가 갑질 문제'에서 촉발된 각종 혐의까지 더해졌다. 결국 2019년 4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 적용되면서 조양호 회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가 회장 이 된 지 20년만이었다.

◆'조원태호' 화물로 다시 날고, 아시아나 합병에 힘 쏟는다

조양호 회장을 이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게 된 사람은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대표이사다. 3세 경영의 시작을 알리며 이목을 끈 가운데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두 차례 경영권 분쟁을 벌였지만, 결론적으로 조원태 회장이 승기를 잡으며 한진그룹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됐다.

이런 와중에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처해 이전에는 없던 봉쇄 상황에 처

했고 사람이 오가는 항공여객은 큰 타격을 입었다. 대한항공도 예외일 수는 없었지만 꾸준히 다져온 물류망은 어려움 속에 빛을 발했다. 대한항공의 2021년 4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2조1807억원을 기록하고, 올해는 별도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7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4%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화물노선 매출은 2조1486억원을 거두며 호조를 이어갔다. 대한항공은 호실적 속에서도 화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며 빠르고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항공업계 리오프닝으로 여객 정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하나, 대한항공이 국내를 넘어 국외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 합병 건' 때문이다. 2020년 11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고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조 회장은 "2022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과 함께 대한항공이 글로벌 메가캐리어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두 항공사를 합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업계를 재편하고 항공역사를 새로 쓰는 시대적 과업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자"라고 언급해 의지를 다지고 현재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대형항공사(FSC)의 합병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만날 항공업계의 미래는 달라질 전망이다. 또 FSC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재편도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객과 한국을 찾는 해외 이용객의 편의를 달라지게 할 것이다. 아직은 심사가 남아 두 FSC의 합병을 완벽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의 판도가 바뀌는 것만큼은 확실하기에 대한항공이 '수송보국'의 기업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한항공 항공기

(주)한진 “글로벌 스마트 로지스틱스 솔루션 기업 도약”

택배·물류·글로벌 사업 부문
2025년 매출 3.5조원 청사진

국내 안팎에서 택배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진은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며 올해 택배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올려 업계 2위 자리를 확실하게 지킨다는 계획이다.

2022년 매출은 2조6640억원, 영업이익은 11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일 한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3월 중장기 경영전략인 '비전 2025'를 발표했다. 마침 2025년은 (주)한진이 창립 8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한진은 '비전 2025'를 통해 택배, 물류,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 2025년 매출 3조 5000억원, 영업이익 1750억원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생활택배 시장 선도 ▲고객 맞춤형 종합 물류 솔루션

제공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솔루션 역량 확보를 과제로 내놨다.

먼저 택배사업은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 구축과 서브 터미널 대형·자동화 등을 통해 처리 능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터미널 신축, 확장, 설비 자동화에 약 51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물류사업은 부산·인천신항 터미널 인프라 확충, 글로벌 해운 동맹(얼라이언스)을 활용한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국내 최고의 컨테이너 터미널 오퍼레이터'로 도약해나갈 예정이다.

신시장 개척과 신재생·수소에너지 등 중심으로 한 신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택배·물류와 함께 핵심 분야인 글로벌 사업은 2025년까지 '1조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은 조현민 사장과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이 함께 진두지휘한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맞춰 국제 특송 및 포워딩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래성장전략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조 사장은 글로벌 감각을 100% 활용해 해외사업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 대표는 지난 4월 초부터 보름까지 현장 점검차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애틀, 시카고 등 한진의 미주 7개 거점을 돌았다. 한진은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에 총 11개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글로벌 스마트 로지스틱스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